

ODA 사업과 축산업의 미래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재개발팀 과장 김영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흐름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증여(Grant)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한 우리나라는 2009년 원조 받는 나라로는 세계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이다.

축산물 전문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도 2012년부터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내부 기반과 이해가 부족했고, 주변의 시선도 부정적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사업을 맡을 수 있고, 또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뿐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축평원에서 국제협력업무 말고 교육(HRD) 업무도 하고 있기에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도 있었다.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였다.



필리핀 축산물품질평가 향상 특화연수(필리핀 ODA)

교육과 국제협력은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공통점이 있다. 교육의 대상만을 놓고 봤을 때 국적만 다를 뿐이지 누군가를 가르치고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가장 단순하고도 중요한 개념을 기초로 축평원의 국제협력사업은 수년간의 축산물품질평가와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국내초청연수로 방향을 잡게 됐다.

물론 이후로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았다. 가장 고민했던 부문은 콘텐츠와 커리큘럼이었는데, '어떤 아이টে으로 접근해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다시 또 단순하고도 중요한 진리,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을 전달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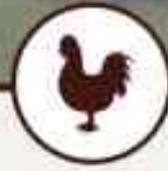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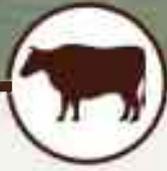
그렇게 해서 나온 주요 연수내용은 한국의 축산정책 및 축산현황 · 한국의 축산물이력시스템 · 축산물품질평가제도 · 축산물유통현황 · 문화체험,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됐다. 현재도 이를 주요 내용으로 국내초청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축평원의 ODA사업은 축평원이기에 할 수 있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며 축평원이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달려왔다. 몇 번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강사 스킬 향상, 교재 편집 등 문제를 해결하며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관계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 연수생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생활한 작은 마음들이 모인 덕분에 매년 연수성취도 100%를 달성하는 소기의 성과도 올릴 수 있었다.



몽골 축산물이력제 역량강화 사업초청연수(몽골 ODA)





다국적 초청연수(다국적 ODA)

특히 올해는 3번의 국내초청연수가 있었다. 그중 고무적인 국제협력사업은 다국가 대상 코이카 국내초청연수다. 9개국 16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가 초청연수는 단일 국가에 비해 교육생의 수요가 다양해 진행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별·대륙별로 그룹을 만들어 해당국의 액션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연수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은 상대 국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우려를 뒤집어 보면 기회가 된다고 생각된다. 국내 축산환경은 위기라고 칭해지고는 있으나 그 속에서도 그간 쌓아온 저력을 빛내며 위기에 맞서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우리만의 노하우, 앞선 기술은 우리에게도 ODA 수원국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앞으로는 수원국의 지리·풍토·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감안해 현지 실정에 맞는 개발 원조를 기획하고 시행하고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수원국과 협의·조정·관리·감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 과정에 축평원의 역할 또한 그만큼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축적된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축산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큰 포부도 가져본다.

성공적인 '한국형 ODA 모델'이 있다면 이제는 성공적인 '축평원 ODA 모델', 나아가 '대한민국 축산 ODA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업무환경 개선과 필요하다면 KOICA와 공공 협력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함께 고민하고, 더욱 생각하며 국내 축산전문기관을 넘은 글로벌 축산전문기관 축평원, 세계 속의 축산 강국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